

당장 급한 불 껐지만... '친노패권 청산' 여진

■ '정청태 직무정지' 초강수 새정치 내홍 수습될까

정 최고위원 "당 결정 존중... 당분간 자숙하겠다"

주승용 "복귀 불가" 재천명... 비노 "미진한 조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정청태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의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당의 극심한 내홍 수습에 팔을 걷어 붙였다.

하지만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복귀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는 등 비노 진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도부 책임론을 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홍 수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청태 직무정지=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사전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나 좀처럼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일부 최고위원들은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신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만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서 짧게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음침마속의 심정"이라면서 "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수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정지'는 아니며, 가급적 공개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결국 문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1시간여에 걸쳐 추가로 논의를 벌인 끝에 다시 "(정 최고위원이) 스스로 밝힌 자숙 내용이 미진하다"며 사실상의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의 조속한 진행 방침을 밝혔다.

◇다음 수순은=이처럼 문 대표가 '초강수'를 던지고 정 최고위원이 "자숙하겠

으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내홍이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는 일단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내홍 수습을 위한 '첫 단추'는 꿰었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친노 진영의 인적쇄신을 상징할 수 있는 당직 개편과 총선 공천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있어야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위한 정치적 명분이 갖춰지고 중도 진영의 지지도 다시 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속되는 여진= 비노 진영에서는 아직까지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주승용 최고위원은 13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표의 정 최고위원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 "달을 가르쳤는데 손가락을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을 직무정지 시켰다고 최고위원에 복귀한다면 나는 정말 공갈 전 사람이 된다"고 복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친노 패권주의 청산이 나의

일관된 주장이며 당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조치"라며 "그 방법은 문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 의원이 이날 당의 분열상에 대해 "4월 보궐선거 패배 이후, 문 대표가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며 "문재인 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을 요구한 김동철 의원이 "미진한 조치"라고 평가한 뒤,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과정을 지켜보고 오는 18일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회동에서 정 최고위원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화합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이회호 여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5·18기념식때 '광주 메시지' 내놓을까

광주 방문...재보선 패배 호남여론 감안 혁신책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8일 광주에서 정부가 주최하는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문재인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표는 4·29 재보선 패배에 이은 당 내용 사태에 대한 호남 민심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고강도 혁신책 제시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청태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등으로 혁신 양상을 보였던 당내 내홍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에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다 차기 총선 공천 등을 둘러싼 고강도 혁신책을



내놓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전에서 문 대표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태극기를 들고 부르자'는 정도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표가 광주 시민단체 등이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주최하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과 관련, '손 소리를 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온지

김승남, 오늘 보성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보성·고흥)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보성군 별교읍 채동선 음악당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 복잡한 보험제도, 까다로운 보상절차, 불충분한 보상 등 농가 불만 사항을 수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배상두 농림축산식품부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주제 발표한다.



또 박근조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지연구 보험개발원 정책보험서비스 팀장, 김재현 농업손해보험 농업보험 본부장, 배민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배재호 비 재배농 등이 패널로 참석해 농업재해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험 가입방식의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저조한 가입률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영순, 새누리 무안·신안 당협 운영위원장에 선출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영순 의원이 지난 12일 무안·신안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새누리당 무안·신안 당협위는 이날 24명의 당협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주 의원은 "겸손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당원과 무안과 신안 군민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및 3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예산 확보 및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여야, 연금개혁 전방위 여론전

새누리 "합의 파기는 아니다"...세미나 개최해 당위성 설명

새정치 "여야합의 밤 먹듯 견어차고 법안 상정 발목" 비난

여야는 13일에도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특강을 통해 조속한 개혁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당 회의석상 발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야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세미나에선 국민대타협기구 실무기구에도 여당 몫 인사로 참여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발제를 맡았던 주호영 의원과 특위 위원인 조원진 의원 등이 패널로 나섰다.

같은 시각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강연을 마련했다.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야당 지도부와 협의할 때도 5월2일 시점에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사항과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억지 논리로 합의 파기라며 일방적인 도그마에 빠졌고 5월 국회 정상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개혁안 처리 불발 이후 다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공격한 데 대해 "합의를 깬 것은 여당"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합의 내용을 밤 먹듯 견어차는 행태", "행패를 부리고 권한남용을 운운했다"는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의 파행과 지난 12일 본회의의 저조한 성과 모두 여당이 합의의 파기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7건에 대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 회부를 원천차단했다며 여당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여당이 법안 3건만 처리하게 돼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뒤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를 한다"면서 "매우 저급한 행태, 매우 비인사적인 행태"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크리마,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형 810평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